

光州日報



제1744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5월 8일

(음력 4월 11일) 월요일

‘어버이날’ 특별기고

재충전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소설가 김별아씨가 아버이 날을 맞아 부모님에 대한 애태한 정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베스트셀러 ‘미실’을 펴낸 김 씨는 어린시절 버스 치창밖으로 우연히 보게 된 ‘아버지의 뒷모습’에 대한 기억을 통해 진정한 ‘효(孝)’의 의미를 묻고 있다.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연히 차창 밖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집안에서 아니라면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아버지, 직장에 어딘지는 알고 있지만 그 곳에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던 아버지가 어디를 가시는지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다.

별로 애교스럽고 살가운 딸이 아니었던 나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하지 않았다. 절제의 이기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었으므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겨울이 없었다.

그것은 엄마나 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나에게 그들은 그저 가족이라는 그럴듯한 동지에 함께 간한 타인에 불과했다.

나는 그 동지를 탈출할 궁리에 여념이 없었고, 실제로 그들이 내게 아무 것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그들을 짐스러워하기도 했다.

그런데 면지가 뿌옇게 오른 버스 차창을 통해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은 참으로 낯설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며 불호령을 내리고 밤상 앞에서 지켜운 설교를 하는 득짜자가 아니었고, 다만 거칠게 몰아치는 시간과 날로 머리가 굽어져 반항하며 대드는 자식들에 밀려 조금씩 늙어가는 중년의 사내일 뿐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쳐진 어깨와 무거운 발걸음이 초자였다.

하지만 부끄럼거나 화가 나진 않았다. 불현듯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연민의 정이 침밀이 올랐다. 낯선 곳에서 낯선 시간에 맞닥뜨린 가족의 낯선 모습은 그렇게 슬프고도 아득했다.

아직은 이런 타령을 하기엔 민망한 형편인지도 모르겠으나,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무섭고도 즐거운 일 같다. 젊은 꿈은 조금씩 사라지고 타락하여 너절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매사에 너그

려워하고 느긋해지며 조금은 더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게 된다.

바로 내가 언젠가 반향과 도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기성세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소름이 오싹 둑기도 한다.

이젠 세상의 위선과 악덕을 마냥 조롱하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바로 그 곳에 내가 살아온 흔적 또한 묻어있기 때문이다.

가족에 대한 태도도 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내가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언제나 나를 책임지며 보호하는 ‘어른인 줄만 알았던’ 부모님에 대한 새삼스런 이해와 자각이 샘솟는다. 그들도 현실의 무게가 등허리를 짓누를 때면 힘들고 고단하고 지겹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진정으로 나의 부모님을 존경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이의 작은 실수에 도 펼펄 뛰며 화를 내고, 고작 초등학생 아이의 중간

고사 결과에 연연하여 양육방식을 고민할 때에, 나는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고 이해했던 부모님을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숨 가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른 인간관계가 그려하듯 효(孝)라는 전통적인 가치는 수정되거나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농경사회 방식으로 지혜의 담지자인 연장자에게 바치는 존경과 감사로서의 효를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굳이 예의와 격식으로 우러러 받들지 아니하면 또 어떤가. 사람으로 태어나 목록히 자기의 운명을 감수하며 자식들을 낳아 기르고 짚음과 노력을 헌신한 그들의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진정한 효는 도리이기 이전에 이해라고 생각한다. 이해는 수평적이면서 넓다. 그리하여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반드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리라.



김별아

▲1969년 강원도 강릉 출생 ▲연세 대국문과 석사 ▲실천문학 ‘당한 문밖의 바람 소리’ 발 표(1993) ▲제1회 청년 삼산문학상(1991), 제1회 세계 문학상(2005) ▲‘식구’ ‘축구전쟁’ ‘미실’ ‘영영 이별 영이 별’ 등 출간

與 광주시장 후보 경선 내분

김재균씨, 광주지역 국회의원 3명 당 윤리위 제소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이번 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김재균 예비후보와 조영택 예비후보측간 경선 파열음이 당 내분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를 위해 역량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요 도리”라며 조 후보 지지와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경선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병문·김태홍·김동철 의원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소속 후보가 있는 데도 무소속 후보를 도와다는 이유로 조 예비후보도 윤리위에 제소했다.

또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일부 당직자들이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조 예비후보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고 나오는 등 상호 비방전도 불붙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광주시장 후보 선정을 위해 8일부터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가짐과 동시에 9일부터 12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께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8일 예정인 토론회조차 후보자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여서 경선이 예정대로 치러질지도 미지수다.

〈관련기사 3면〉

서형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특별 위원장 등 7명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조 예비후보의 내무부 재직 시절 금품 관련 전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자격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조 예비후보측은 “명백하게 허위事實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향후 악의적인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임택 광주시당 부위원장 등 조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경선상대에 대한 무책임한 폭로는 ‘해당행위’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성녹차 마라톤 대회

7일 오전 9시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일보와 보성군 공동 주최 ‘제2회 보성녹차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5천여명의 마라토너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관련기사 23면〉

/보성=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 한 영씨



16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후보
를 모두 확정하
게 됐으며, 한씨
는 이 중 유일한
여성 후보다.

한씨는 전라남

도 여성정책과장과 광주여성단체협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에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출신인 한 영(여·65)씨를 공천하길 기로 결정했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허

태열)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인재영입 케이스인 한씨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고,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인준하기로 했다고 공식화 관계자들이 7일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로써

매니페스토 정체선거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5·31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정체선거 실증을 위한 토론회

• 5·31 지방선거 정체선거 실증을 위한 토론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